

# 朝鮮時代の 地圖冊 Old Atlases Made in Choson Dynasty

李 燦\*  
Lee Chan

## 要 旨

朝鮮時代에는 많은 地圖冊이 만들어졌고 또 널리 普及되었다. 특히 17세기 이후의 인쇄술의 보급과 사회 경제적인 발전은 지도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地圖冊에는 行政上의 필요에 의해서 邑誌의 편찬과 그 시기를 같이하는 府郡縣地圖集과 일반 선비들의 地理的 지식을 돕기 위한 天下圖 또는 輿地圖라고 題目을 붙인 地圖冊이 발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府郡縣地圖集의 概要를 살펴보고 一般用으로 발달한 天下圖地圖冊에 대하여 그 類型, 作成年代, 內容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Choson Dynasty there were growing interest of making maps of Korea as well as world maps. After the 17th century, county maps were especially made extensively through administrative channels, and county maps were collected and bound by each provinces in a form of atlases. Following this line, new simple atlases were appeared for general use. The atlases were consisted with map of the world, China, Japan, Ryukyu, Korea, provincial maps of Korea. This paper will put an emphasis on general atlases which used widely during the later Choson Dynasty until almost to the end of 19th century with a brief description of atlases of county maps.

## 1. 序 言

朝鮮時代に 들어와서 地理誌와 地圖에 대한 國家的인 관심이 점차 높아졌고 歷史書의 1부 로 다루어 오던 地理誌는 東國輿地勝覽과 같이 독립된 종합적 地理書로 나타나게 되었다. 地理書의 중요성과 더불어 地圖에 대한 관심은 조선 초기부터 높아졌다. 太宗 2年(1402)에 이미 新大陸을 제외한 당시의 世界地圖인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완성하였고 현재까지 그 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지도의 완성에는 國內에서의 八道地圖와 府郡縣地圖의 작성과 外國에서의 地圖資料의 수집이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地圖의 발달과 관심은 각종 지도를 모아서 책으로 엮은 地圖冊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中國, 日本과 우리나라는 같은 東洋文化圈에 속하고 있어서 地圖發達에도 共通性이 많다. 그러

나 朝鮮時代に 發達한 地圖冊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널리 普及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시대에 발달한 道別郡縣圖集과 일반 선비들이 애용한 輿地圖 또는 天下圖라고 冊名이 붙은 지도책에 대하여 그 類型과 起源, 地圖의 內容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資料는 多年間 필자가 수집한 20여권의 지도책과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영남대학교의 도서관 및 박물관 소장본을 이용하였다.<sup>1)</sup>

## 2. 道別府郡縣圖集

道別府郡縣圖集은 英祖 33年에서 41年(1757~1765) 사이에 작성된<sup>2)</sup> 輿地圖書의 작성연대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地圖冊에는 輿地圖書에 첨부된 각 郡縣圖와 같이 대부분이 그림지도이고 축척도 동일하지 않다. 즉 같은 크기의 지면에 그린 관계로 면적이 넓은 郡縣은

\*前 서울大學校 教授

좁은 군현보다 축척이 작아질수 밖에 없다. 그 뿐아니라 지도의 작성이 각 郡縣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中央에서 모아서 작성한 관계로 지도의 표현방식과 내용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다. 지도의 내용은 山系와 水系가 특히 잘 표현되어 있고 交通路, 驛, 燧燧, 嶺, 山城, 邑治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邑治와 山城은 축척에 관계없이 크게 자세히 표현되었다. 輿地圖書와 같이 同時的인 자료에 기초한 邑地圖를 道別 또는 全國的으로 모아놓은 것임으로 史料的 가치가 더욱 높다. 道別地圖冊에는 각 군현도 외에 道別全圖를 卷頭に 첨부한 것도 있다. 各郡縣圖는 地圖의 餘白에 邑事例 또는 沿革등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나 서울大學校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海東地圖」(그림 1)와 같이 각 군현의 地圖餘白과 별

도로 裏面에 자세한 기록을 한것도 있다(그림 2, 3). 이런 지도책은 地理書와 地圖冊을 겸한 中間型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言及한 그림지도의 道別府郡縣圖集 외에 方眼을 이용한 縮尺이 정확한 道別地圖冊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림지도식 道別地圖冊은 冊의 크기에 地圖의 크기를 맞추고 있으나 이 지도책은 方眼을 이용해서 어느 곳이나 동일 축척이 되도록 하고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의 八道地圖(貴 218, 한-61-21)는 8권 8책의 채색지도이며 道別全圖는 없고 畿輔方輿, 湖西方輿 등 道別府郡縣圖集으로 되어 있다. 각 군현도는 30리를 4cm로 한 方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약 30만분의 1 지도가 된다. 그림지도로 된 郡縣圖는 山城이나 邑治등은 축척에 관계없이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方眼座標를 이용한 이 지도에서는 山城이나 邑治를 記號로 표시함으로써 동일 축척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도는 方位, 축척 거리등이 정확하나 그림지도에서와 같이 地圖의 餘白에 그곳의 史跡이나 景觀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地理書的 역할을 동시에 가질수는 없게되었다. 方眼을 이용한 군현도에는 1里方眼을 사용한 大縮尺地圖도 있다.<sup>3)</sup> 서울대의 奎藏閣所藏 湖西地圖(도서번호 奎 12157)는 備邊司印이 찍혀있는 地圖冊이며 道別全圖는 10里方眼 郡縣圖는 1里方眼을 쓰고 있으며 縮尺은 각각 약 26만분의 1과 4만 5천분의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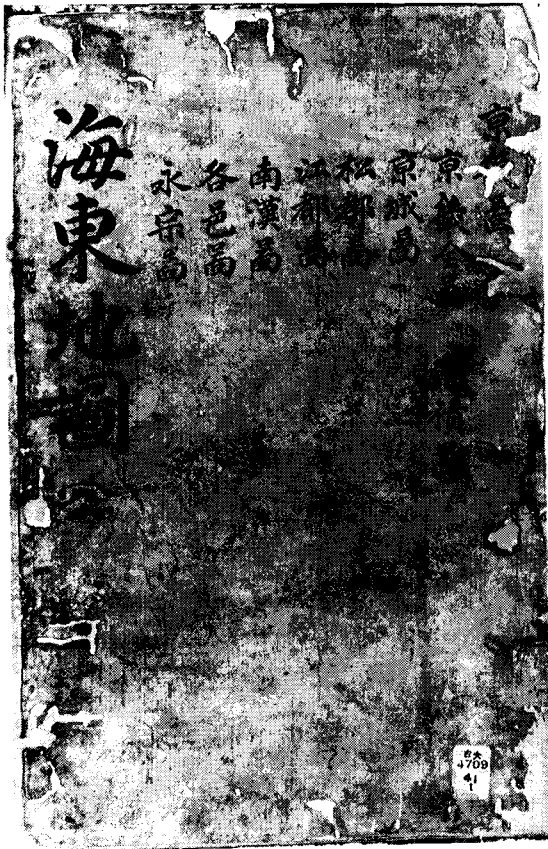


그림 1 海東地圖表紙  
채색사본 서울大學圖書館 48.6×32.3cm

### 3. 輿地圖冊

위에서 고찰한 大型 道別郡縣圖集은 대부분이 정부에서 행정,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책은 아니었고 또 모두 필사본이었다. 輿地圖 또는 天下地圖라고 책명이 붙은 간략한 지도책이 朝鮮 후기에 들어서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이 지도책은 조선 후기의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더불어 印本 또는 필사본으로 널리 보급된 것으로 사료된다. 널리 보급된 증거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지도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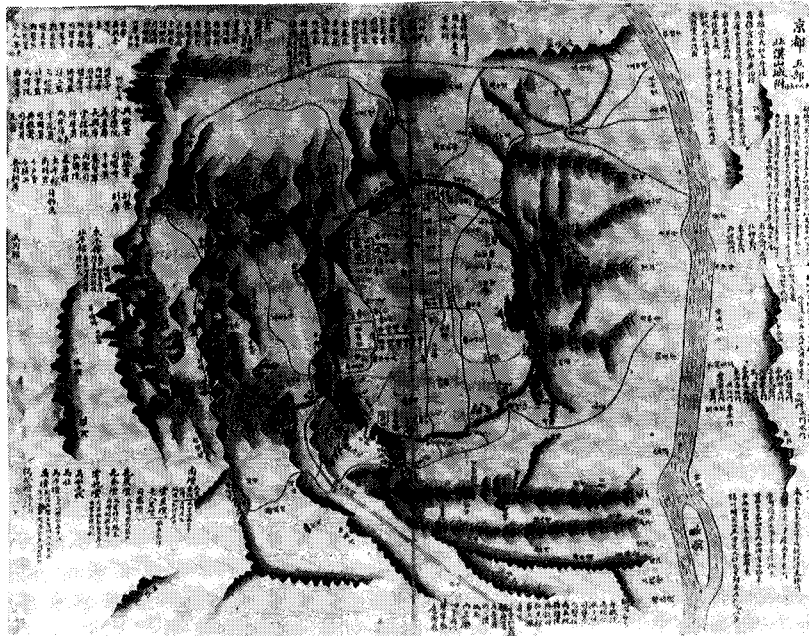


그림 2 海東地圖의 京都五部  
 채색사본 서울大圖書館 46.7×64.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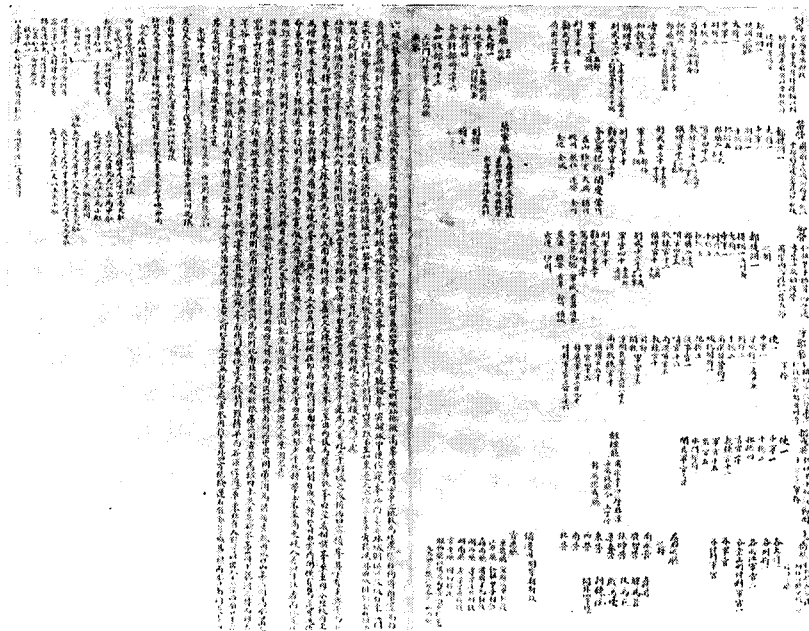


그림 3 京都五部の 裏面

량이 많고 또 그 내용도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1) 地圖冊의 類型

輿地圖冊은 내용 구성을 板本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다음 4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① 天下圖, 中國圖, 東國八道大總圖, 八道分圖, 日本國圖, 琉球國圖를 포함한 13圖로 구성된 지도책, ② 위의 지도책에서 日本國圖, 琉球國圖, 東國八道總圖(朝鮮全圖)를 제외한 10圖로 구성된 지도책, ③ 魏伯珪(1727~1798)가 1770년에 저술하고 후손이 1822년에 木版으로 刊行한 寰瀛誌 안에 실린 地圖를 뽑아서 地圖冊으로 만든 것, ④ 八道分圖와 驛, 鎭, 管, 堡, 山城, 民戶, 田結 등 地誌 자료를 포함한 小型折疊地圖(10.3×5.5 cm) 등으로 나눌 수 있다.

筆寫本 지도책은 그 내용이 板本보다 훨씬 多樣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필사본 지도책은 판본을 그대로 寫本한 것이 많다. 그러나 필사본 중에는 필사자의 필요에 따라서 都城圖(서울), 松京圖, 天地圖, 盛京圖, 燕京圖, 遼薊關防地圖 등이 첨가된 것과 鄭尙驥의 八道地圖를 小縮尺으로 만든 八道地圖冊도 찾아 볼 수 있다.

### (2) 地圖冊의 作成年代

이 지도책들은 대부분이 편자와 刊記가 없어서 제작 연대는 地名의 변천, 한 군현에 있어서의 府, 郡, 縣 등으로의 昇降이 있었던 地名, 지도책에 戶口와 田結數가 있을 경우에는 그 戶口와 田結數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의 제작 연대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현재 古地圖를 비교적 많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大學校 도서관, 중앙 국립도서관, 崇實大, 高大, 嶺南大, 誠信女大 도서관 또는 박물관에 소장된 지도책과 필자가 수집한 지도책 등을 바탕으로 그 제작 연대를 구분하면 17~18세기와 18~19세기의 것으로 大別할 수 있다.

17~18세기의 것으로는 孝宗 3년에서 肅宗 9년(1652~1683) 사이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木板本이 있고, 英祖와 正祖 시대에 해당되는 版本으로 1767~1776년 사이에 작성된 것과 1767

년 이전의 것을 들 수 있다. 위에 언급한 2종의 板本에는 내용은 유사하나 동일 板本이 아닌 것도 있어서 실제로는 종류가 더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17~18세기 판본 지도책에는 대부분 지도책의 편자와 간기가 적혀있지 않다. 그러나 英祖年間에 간행된 板本中 天下圖 외곽에 「康熙二十三年甲子謹製」라고 陰核으로 追記한 것을 10여년전에 구입한 것이 있다. 이 지도책은 道別圖의 地名등으로 보면 1767~1776년 사이로 추정되나 위의 追記를 보면 1684년(肅宗 8년)에 해당된다. 같은 지도책에서도 天下圖의 판각 연대와 八道分圖의 판각 연대가 다를 경우를 생각하면 같은 지도책에서의 연대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英祖年間의 板本으로 추정되는 地圖冊에 위에서 言及한 小型 휴대용 八道地圖, 또는 袖珍八道地圖라고 부르는 매우 작은 지도책이 있다. 이 소형 지도책은 병풍과 같이 折疊으로 되어 있으며 16折兩面에 道別地圖와 간략한 地誌資料를 기록하고 있다. 이 소형 지도책은 비교적 많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널리 여행용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7~18세기의 필사본에서도 板本과 같이 孝宗~肅宗年間의 것과 英祖年間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國立圖書館 소장이고 6冊으로 되어 있는 天下地圖(輿地圖)는 보편적인 天下地圖에 遼薊圖, 松都, 都城圖(서울), 道別全圖, 郡縣圖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위에서 고찰한 大型輿地圖冊과 일반 天下地圖冊을 합친 것으로 그 연대는 함경도의 茂山이 신설된 肅宗 10년(1684)에서 경상도의 安陰, 山陰이 安義, 山淸으로 개명되기 이전 즉 영조 43년(176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친 板本天下地圖冊에는 4類型이 있다. 첫째는 책의 序文에 鎬湖山人 愛景齋라고 편자를 밝히고 屠維作噩 즉 己酉라고 刊記를 적은 것이다. 地圖內의 地名으로 보면 理山이 楚山으로 改名된 1776년 이후가 됨으로 1789년과 1849년 중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大所藏인 같은 版本(古 4709, 12~1) 표지에 「崇禎後四己酉春始□」

라고 써 있는것으로 보아 1849 년일 가능성이 크며 紙質로 보아서도 板本으로는 가장 年代가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다른 地圖冊이 대부분 蝴蝶裝인데 이 지도책은 土紅絲綴 장정이다.

둘째 지도책은 현대식 正射圖法의 경위선 조직을 갖는 天下圖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地名으로 보면 1767 년에서 1776 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sup>4)</sup> (논문 뒷부분의 지도참조)

세째는 浮雲墨客 板寫라고 제작자를 밝히고 있는 板本天下地圖冊으로 책의 크기가 가장 큰 (57 cm×36 cm) 지도책이다. 이 지도책에는 沿海에 風船 또는 경치를 陰核으로 나타냈고 山地 표시도 장식 조각을 하는 등 地圖이면서 板畫의 인 가치를 겸비하고 있다. 地名으로 보면 위의 지도와 같이 1767 년에서 1776 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네째 유형은 순 한글로 지명을 표기한 天下地圖冊이다. 내용은 13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성(開城), 과천(果川), 농인(龍仁), 광궤(廣州) 등의 옛 한글 발음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도 유형은 혼하지 않으며 현재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13 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96 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 시기의 필사본으로 道光 19 년(1839)에 거듭해서 새로 만들었다(重新之)라고 기록되어 있는 필자가 수집한 地圖冊에는 松都圖, 松京幅員圖, 八道分圖, 漢城府圖, 朝鮮八道總圖, 日本圖, 琉球圖, 中國, 天下圖, 盛京圖, 天地圖(天文圖 중앙에 현재의 동부아시아를 그린 지도. 그림 5 참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各地圖의 外郭에 關連되는 역사적 사실, 察訪, 僉使, 萬戶, 鎭營, 田結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天下地圖冊은 17 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필자의 과문인지 모르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18 세기 후반 이후의 것이고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이르기까지도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사료된다. 그 증거로 위에서 언급한 한글 輿地圖冊이 1896 년 이후에 작성되었고, 1893 년에 작성된

吳宏默의 輿載撮要(규장각 15568, 5 冊本)에도 在來의 天下總圖와 中國總圖를 현대적인 세계지도와 같이 싣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3) 地圖冊의 內容

#### 天下圖

地圖冊의 첫머리 또는 卷末에 포함되어 있는 天下圖 또는 天下總圖라고 불리우는 世界地圖가 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地圖冊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세계지도이고 韓國人이 만든 세계지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起源과 內容에 대해서는 多樣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도의 內容을 살펴보면 地圖의 中央에 中國을 中心으로 하는 中央大陸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內海(裨海), 그리고 그 밖에 環大陸이 둘러싸고 그 밖에 溟海(瀛海)가 있다.

18 세기 말에서 19 세기 초에 작성된 한 목판본 지도책을 조사해 보면 國名이 89, 山名이 39, 河川名이 5, 沼澤名이 5, 樹木이 3, 기타 3 으로 전체 144 개의 地名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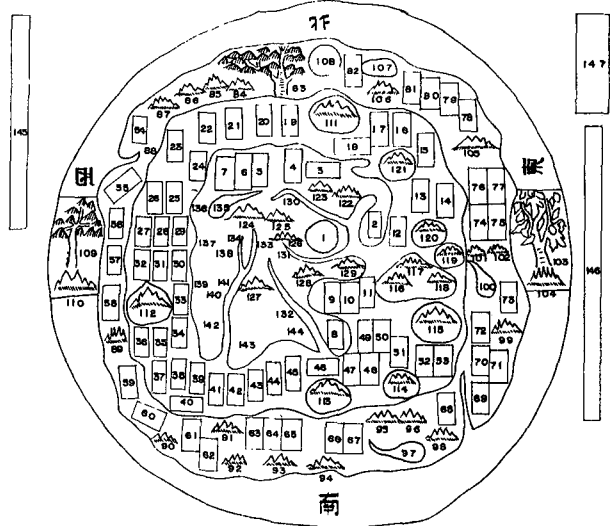


그림 4 天下圖 說明圖解

- |         |         |         |
|---------|---------|---------|
| 1. 中國   | 2. 朝鮮國  | 3. 肅慎國  |
| 4. 大封國  | 5. 赤脛國  | 6. 流國   |
| 7. 大幽國  | 8. 安南國  | 9. 暹羅國  |
| 10. 眞臘國 | 11. 琉球國 | 12. 日本國 |

- |            |          |          |
|------------|----------|----------|
| 13. 明但國    | 14. 腸國   | 15. 毛民國  |
| 16. 勞民國    | 17. 玄肱國  | 18. 拘緩國  |
| 19. 博父國    | 20. 眞耳國  | 21. 馭糸國  |
| 22. 无腸國    | 23. 擎禹國  | 24. 白民國  |
| 25. 深目國    | 26. 無暇國  | 27. 巫咸國  |
| 28. 索利國    | 29. 一目國  | 30. 大樂國  |
| 31. 聚屈國    | 32. 伽毗國  | 33. 羽民國  |
| 34. 長脚國    | 35. 三身國  | 36. 奇肱國  |
| 37. 臂國     | 38. 三首國  | 39. 載國   |
| 40. 結育國    | 41. 厭火國  | 42. 貫肱國  |
| 43. 長臂國    | 44. 文脛國  | 45. 不死國  |
| 46. 岐吉國    | 47. 食木國  | 48. 長沙國  |
| 49. 足明國    | 50. 扶桑國  | 51. 蚩二國  |
| 52. 鳩始國    | 53. 小人國  | 54. 淑女國  |
| 55. 壽麻國    | 56. 軒轅國  | 57. 女子國  |
| 58. 雲和國    | 59. 火山國  | 60. 互人國  |
| 61. 城民國    | 62. 羲和國  | 63. 驩頭國  |
| 64. 季禹國    | 65. 載民國  | 66. 盈民國  |
| 67. 鼠性國    | 68. 嬖民國  | 69. 女人國  |
| 70. 君子國    | 71. 中容國  | 72. 司幽國  |
| 73. 夏州國    | 74. 龍伯國  | 75. 仲太國  |
| 76. 少昊國    | 77. 俳人國  | 78. 大人國  |
| 79. 始州國    | 80. 比肩國  | 81. 无腸國  |
| 82. 深目國    | 83. 千里盤松 | 84. 舟山   |
| 85. 不白山    | 86. 章尼山  | 87. 不周山  |
| 88. 寒暑水    | 89. 荒山   | 90. 融天山  |
| 91. 襄山     | 92. 天台山  | 93. 倫山   |
| 94. 契山     | 95. 倚天山  | 96. 蘇門山  |
| 97. 白淵     | 98. 待山   | 99. 堅明山  |
| 100. 甘淵    | 101. 甘山  | 102. 招搖山 |
| 103. 扶桑    | 104. 波山  | 105. 衡天山 |
| 106. 系民    | 107. 封淵  | 108. 大澤  |
| 109. 盤格松   | 110. 方山  | 111. 廣野山 |
| 112. 麗農    | 113. 長離山 | 114. 連石山 |
| 115. 廣桑山   | 116. 蓬萊山 | 117. 方丈山 |
| 118. 溫洲山   | 119. 扶桑山 | 120. 圓杓山 |
| 121. 姑射山   | 122. 泰山  | 123. 恒山  |
| 124. 崑崙山   | 125. 華山  | 126. 崇山  |
| 127. 三千子章山 | 128. 衡山  | 129. 天台山 |
| 130. 黃河    | 131. 漢水  | 132. 赤水  |
| 133. 黑水    | 134. 洋水  | 135. 疏勤  |

- |           |            |         |
|-----------|------------|---------|
| 136. 車師   | 137. 繕善    | 138. 沙車 |
| 139. 大宛   | 140. 烏孫    | 141. 月支 |
| 142. 西域諸國 | 143. 蕃胡十二國 | 144. 臯腸 |

筆寫本 地圖冊에서는 地名이 더 자세한 것을 볼수 있다. 木板本에서는 좁은 版木에 많은 地名을 새기기 어려운 관계로 緯事本에서와 같이 西域諸國의 國名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西域諸國, 蕃胡十二圖 등으로 전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國名의 分布를 보면 中心大陸에 15개국, 또는 73개국으로 되어 있고 內海에 45개국, 環大陸에 29개국으로 되어 있다. 실제적인 國名은 대부분이 中心大陸에 위치하며 內海와 環大陸에 있는 國名은 대부분이 가상의 國명들이다. 內海와 環大陸에 있는 실제적인 國名으로는 日本國과 琉球國 정도이고 그 외는 山海經에 나타나는 믿기 어려운 三身國, 三首國, 不死國, 女人國 등의 기이한 國名이 대부분이다. 山名은 國名다음으로 많은 地名이다. 山名의 分布를 보면 中心大陸에 8, 內海 11, 環大陸에 18, 環海上에 5로 되어 있다. 山名도 실제적인 것은 中心大陸에 있는 것 뿐이다. 河川名은 전부 中心大陸에 있으며 5개를 기록하고 있다. 沼澤은 5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와 가까운 것은 說明圖解의 135번에 해당되는 湖水뿐이다. 이 호수는 현재의 地中海, 黑海 또는 카스피해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地圖冊에는 沙漠이라고 표시한 것도 있다. 環大陸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는 大澤과 白淵은 極地方의 얼음에 덮인 湖水나 北極海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一般地圖에서 記入할 대상이 안되는 樹木이 3곳에 나타나고 있다. 扶桑, 千里盤松, 盤格松 등이 이것이다. 扶桑은 山海經에 나오는 東海上의 神木을 나타내고 있으며 日月이 떠오르는 곳으로 믿고 있다. 千里盤松, 盤格松도 부상과 같이 전통적인 吉祥信仰과 연결되고 있다.

天下圖의 作者와 起源에 대하여는 여러 學者들이 言及하고 있으나 아직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sup>6)</sup> 金良善은 전기 논문에서 中國 戰國時代의 鄒衍의 世界觀과 天下圖의 내용이 일치함을 魏伯珪의 寰瀛誌를 인용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에 전해지는 天下圖는 高麗時代에 傳

來된 것을 朝鮮初期에 轉寫한 것으로 보고 있다. Nakamura(中村)는 그의 英文으로된 論文에서 天下圖는 原來 中國에서 漢代以前에 만들어졌고 그후 韓國에 도입되었으며 16세기 경의 인쇄술의 발달로 널리 보급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그의 논문제목에서와 같이 朝鮮에 보존된 中國地圖라고 보고 있다. 海野는 1978년과 1981년에 天下圖에 대하여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였다. 天理大 소장본, 海野 自身の 소장본, 大英博物館 소장본 등을 참고로 한 이 論文에서 그는 어느 地圖冊이 原本인가에 關心을 가지고 연구했고 또 天下圖의 성격과 作成年代에 言及하고 있다. 海野에 의하면, 天下圖는 中村과 달리 朝鮮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佛敎系의 四海華夷總圖와 마테오리치의 西洋系 單圓世界圖에 觸發되어 탄생한 道敎의 내지 神仙의 世界圖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러한 地圖의 탄생은 17~18세기의 實學者中에서 일어난 西學의 批判의 立場에서 西洋地圖에 對항해서 考案한 것이 天下圖일 것으로 斷定하고 있다.<sup>7)</sup> 이러한 思考는 中國에서의 「三才圖會」所載 山海輿地全圖의 形成過程과 같은 맥락에서 보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中村이 말하는 天下圖의 中國起源은 天下圖는 현재 韓國에서만 전해지고 있고 같은 文化圈인 中國과 日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合理性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필자가 이미 밝힌 바 있다.<sup>8)</sup> 海野의 天下圖에 대한 考察은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즉 그는 天下圖의 起源을 17~18세기의 實學者 중의 한사람이 四海華夷總圖와 마테오리치系의 單圓世界地圖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형태에서 볼때 天下圖는 위의 두 지도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미 言及한 鄒衍의 世界觀을 표현한 “中國四方之海 是號裨海 其外有大陸環之 大陸地外 又有大瀛海環之方是地涯云”<sup>9)</sup> 즉 “中國의 四方에 있는 바다를 裨海라 부르고 그 밖을 大陸이 둘러싸고 있고 그 대륙밖에 瀛海가 둘러싸고 이것이 땅의 끝이다.”라는 내용은 四海華夷總圖와 마테오리치系의 單圓世界地圖보다 훨씬 더 天下圖의 형

태에 부합된다. 天下圖의 起源과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學者들의 언급이 있으나 현존하는 것으로 보면 17세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 中國圖

中國本부와 우리나라 및 日本을 포함하는 東部아시아의 地圖이며 日本을 國名만 海中에 써 넣은 것을 제외하면 그 윤곽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萬里長城과 黃河, 揚子江이 강조되어 있는 점이 눈에 뜨인다. 中國에 관한 정확한 지도는 朝鮮초기에 작성된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1402)를 비롯하여 中國, 朝鮮, 日本이 포함된 지도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sup>10)</sup> 地圖冊에 이용된 中國圖의 윤곽은 위의 자세한 지도를 간략히 그린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은 禹重九州, 春秋戰國時代의 11國, 明代의 中原 13省이 같은 地圖안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各省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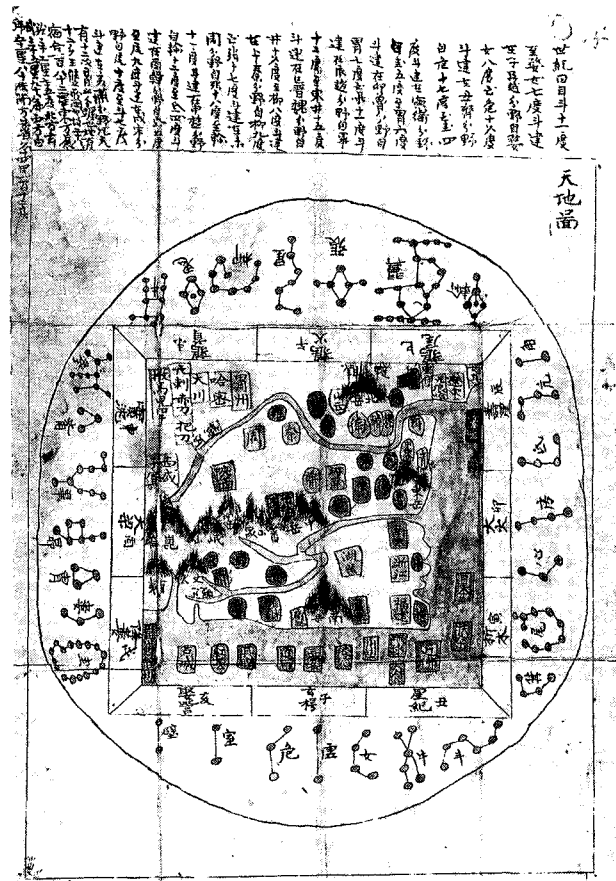


그림 5 天地圖 47×30 cm(筆者所藏)

北京順天府까지의 里程이 기록되어 있고 洞庭湖의 岳陽樓, 崑崙山, 泰山, 華山, 田橫島 등 역사적으로 알려진 地名들이 記入되어 있다.

일반 지도에서는 볼수 없는 角亢氐房心尾箕 등 二十八宿의 星座名을 그 星座와 관련되는 地方에 표기한 것이 이 지도에서 특이한 점이다. 地圖에 관련되는 星座名을 記入한 地圖로는 金壽弘의 天下古今大總便覽圖(1666)에서 볼수 있다. 地圖와 二十八宿의 關係를 그린 地圖로 天地圖라고 地圖名을 붙인 地圖가 地圖冊에 별개의 地圖로 나타나기도 한다.<sup>11)</sup> 이것은 天文誌와 地圖의 밀접한 關係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어떤 星座에서의 변화는 곧 그 星座와 관련되는 分野에서 변화가 예측된다고 믿는 일종의 占星術과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地圖에는 지표상의 現象뿐이 아니고 어떤 星座와 관련되고 있음을 표시하게 된 것이다.

版本의 대부분은 黃河의 기원을 崑崙山으로 하고 있으나 筆寫本에서는 黃河의 起源을 星宿海로 明記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差異는 조선후기에 들어서서 中國에 관한 資料가 풍부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日本國圖와 琉球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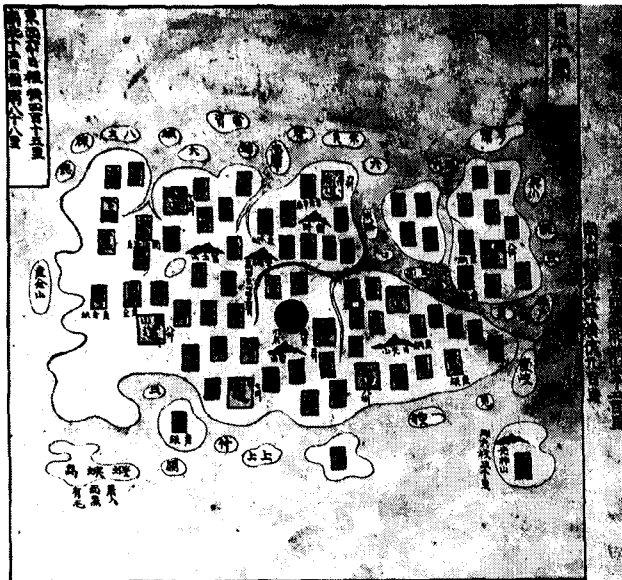


그림 6 寫本에 나타나는 日本國圖(筆者所藏)

日本圖는 木版本에서는 거의 例外없이 南쪽을 地圖의 위로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다(그림 8). 海東諸國記의 日本島를 變形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不自然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다. 海東諸國記의 日本地圖는 方位와 모양이 정연하며 거리 감각도 잘 나타나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오랫동안 轉寫하는 과정에서 모양뿐만 아니라 地名에도 誤字가 심하다. 그러나 筆寫本에서는 版本에서 보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日本圖가 나타난다. 이것은 版本과 寫本의 日本圖의 原圖가 다른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6)의 日本國 지도와 그 형태가 같은 지도를 看羊錄에서 찾을 수 있다. 看羊錄은 丁酉再亂 때 일본의 포로가 되었던 姜沆의 기록을 모은 책으로 1656년에 간행되었으며 倭國八道六十六州圖가 포함되어 있다.<sup>12)</sup>

中國圖와 비교하면 日本國圖는 그 내용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地圖의 윤곽에서도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日本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文化的인 교류가 적었음을 立證해 주는 증거이다.

琉球國은 조선시대에 비교적 우리나라와 교류가 잦았던 곳이며 海東諸國記의 琉球國圖는 日本人僧 道安이 端宗元年(1453)에 朝鮮에 전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3)</sup> 天下圖 地圖冊의 琉球國圖는 모두 海東諸國記의 琉球國圖를 전사한 것이나 오랫동안 전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地名에 誤字가 많아졌다.

#### 東國八道大總圖와 道別分圖

東國八道大總圖는 大部分이 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와 비슷하며 韓半島의 모양이 실제보다 東西의 폭이 南北의 길이 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東西와 南北의 비율 차이는 紙面의 규격에 맞추어 지도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道別圖를 잇대어 全圖를 만들어 보면 훨씬 더 현실적인 韓半島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地圖冊에 따라서는 地圖의 左右 餘白에 우리나라의 沿革과 간략한 地誌資料를 기록하고 있고 地圖 안에도 餘白을 이용하여 道別戶口와 田結數를 기록하고 있다.

道別分圖는 府郡縣을 표시하고 各郡縣마다 守



승의 位階와 京都까지의 日程을 표시하고 있다. 筆寫本 地圖冊에는 각 郡縣間의 距離를 里數로 표시한 것도 있다. 道別圖의 下段에는 察訪, 鎭, 堡, 山城, 民戶, 田結, 兵營, 水營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 것도 있다. 時代에 따라서 府郡縣名의 변동과 郡이 縣으로 降等되거나 府로 昇格되기도 한다. 이러한 地名의 변천, 郡의 昇降을 기초로하여 地圖冊의 年代 추정에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4. 結 論

朝鮮後期の 地圖冊의 발달은 地理書의 발달과 그 脈을 같이하는 것이고 특히 府郡縣地圖集은 그 性格이 강하다. 一般地圖로 널리 普及된 天下圖地圖冊은 朝鮮後期の 사회 경제적 발달로 인한 물자의 교류, 교통의 발달에 부흥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한 지도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八道總圖와 道別分圖는 당시의 지방수령 및 선비들에게 필수적인 지리지식을 출수있는 지도라고 사료된다.

中國, 日本, 琉球國圖는 당시의 선비들의 意識과 外國에 대한 視野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韓國의 선비들은 中國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地理的 知識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中國圖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歷史的 文獻과 연결시킨 歷史地圖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日本과 琉球에 대한 지식은 中國에 비교하면 相對적으로 뒤떨어져 있었고 文化的인 교류도 적었음을 日本國圖와 琉球國圖는 말해주고 있다.

韓國人の 世界地圖로 널리 알려진 天下圖는 朝鮮後期 韓國人の 世界觀의 一面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朝鮮後期에는 中心大陸과 裨海, 瀛海의 개념이 西洋에서 導入된 새로운 世界地圖와 나란히 併存하고 있었다. 吳弘默의 輿載撮要(5冊本)에 西洋의 兩半球圖를 導入하면서 在來의 天下圖를 挿入하였고 實瀛誌의 著者 魏伯珪도 같은 책안에 西洋의 地理知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天下圖의 構造를 말해주는 鄒衍의 說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天下圖의 作者

와 時代 등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天下圖는 朝鮮時代に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데는 意見이 모아지고 있으며 朝鮮後期에 實學者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可能性을 시사하는 學者도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多樣한 변화를 거처온 天下圖에서 어느것이 原型이고, 어떻게 발달해왔다는 過程을 추적하기에는 資料의 限界를 느끼게 한다.

#### 參考文獻

1. 本論文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 3회 韓日科學史세미나(1986년 10월 23~25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충정리한 것임.
2. 崔永禧, 輿地圖書 解説, 國史편찬위원회, 1973, pp. 1~11.
3. 李 燦, "韓國古地圖에서의 座標點系," 「한국과학사학회지」 제 3권 제 1호(1981), pp. 3~11.
4. 이 지도책의 경상도 도면에 安義 山淸으로 표기되어 있고 평안도의 楚山은 理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安義와 山淸으로 改名된 1767년 이후이고 理山이 楚山으로 改名된 1776년 이전이 되는 셈이다.
5. 筆者所藏 地圖冊 번호 2-1이며 1776년 이후의 지도책이고 序文末尾에 屠維作噩(己酉) 錦湖散人 戲書 愛景齋라고 쓰여 있다.
6. 지금까지 발표된 중요한 論文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Yi, Ik-Seup "A Map of the World," *The Korean Repository*, Vol. 7. 1892, pp. 336~341 with 1 plate.  
Hulbert, H. B. "An Ancient Map of the World," *Bulletin,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04 (October), pp. 66~605.  
Nakamura, Hiroshi "Old Chinese Maps Preserved by the Koreans," *Imago Mundi*, IV, 1965, pp. 3~22.  
金良善, "韓國古地圖研究抄" 「崇大」 제 10호, 1965, pp. 62~88. 「梅山國學散稿」, 1972.  
全相雲, "李朝初期의 地理學과 地圖," 「古文化」 4집, 1966, pp. 1~16.  
McCune, Shannon, "Old Korean Maps," *Korea Review*, 1949, Vol II, No. 1, pp. 14~17.  
李 燦, "韓國의 古世界地圖: 天下圖와 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對하여," 韓國學報 제 2집, 1976, pp. 47~66 附地圖 6面.  
海野一隆, "朝鮮李朝時代に流行した地圖帳—天理圖書館所藏本を中心として—," *ビブリア* 第70號, 1978, pp. 1~28.  
——, "李朝朝鮮における地圖と道教," *東方宗教*, 第57號, 1981, pp. 14~37.
7. 海野一隆, 1981. 前掲書

8. 李 燦, 1976, 前掲書
9. 魏伯珪, 寰瀛誌, 英祖 46 年(1770)에 著述한 것을 1822 年에 後孫이 木版으로 刊行함. p. 10
10. 韓國圖書館學研究會, 「韓國古地圖」 1977, p. 18, 19, 41.
11. 前掲書 韓國古地圖, p. 15.
12. 姜沆(李乙浩譯) 看羊錄, 睡隱姜沆先生紀念事業會 1955.
13. 端宗實錄, 7 卷, 端宗元年 7 月 4 日條.



그림 7 中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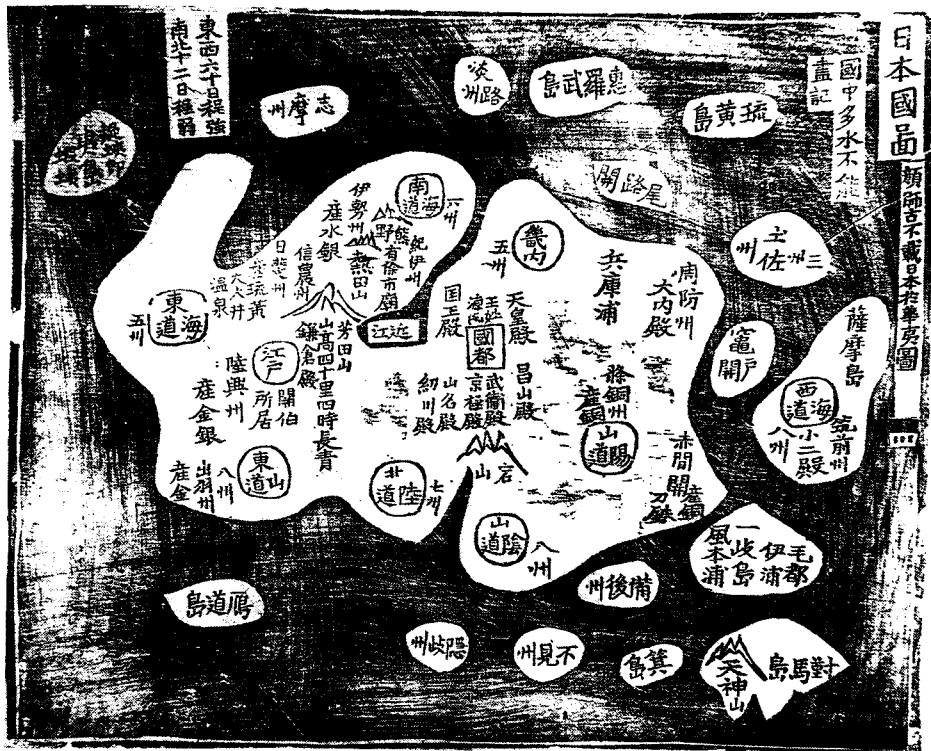


그림 8 日本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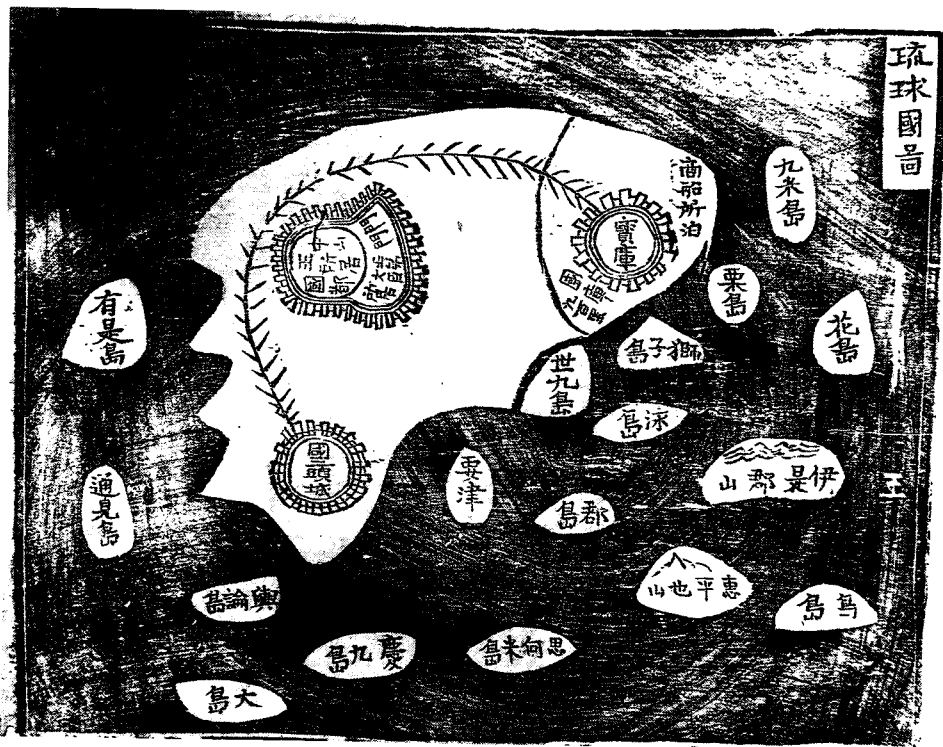


그림 9 琉球國圖



그림 10 東國八道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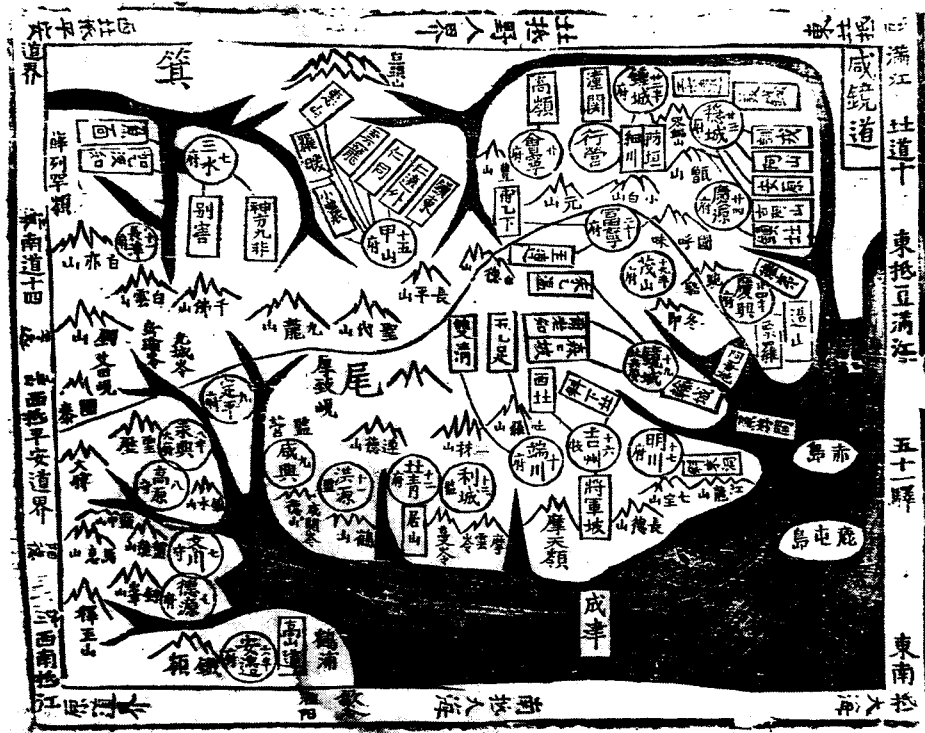


그림 11 咸鏡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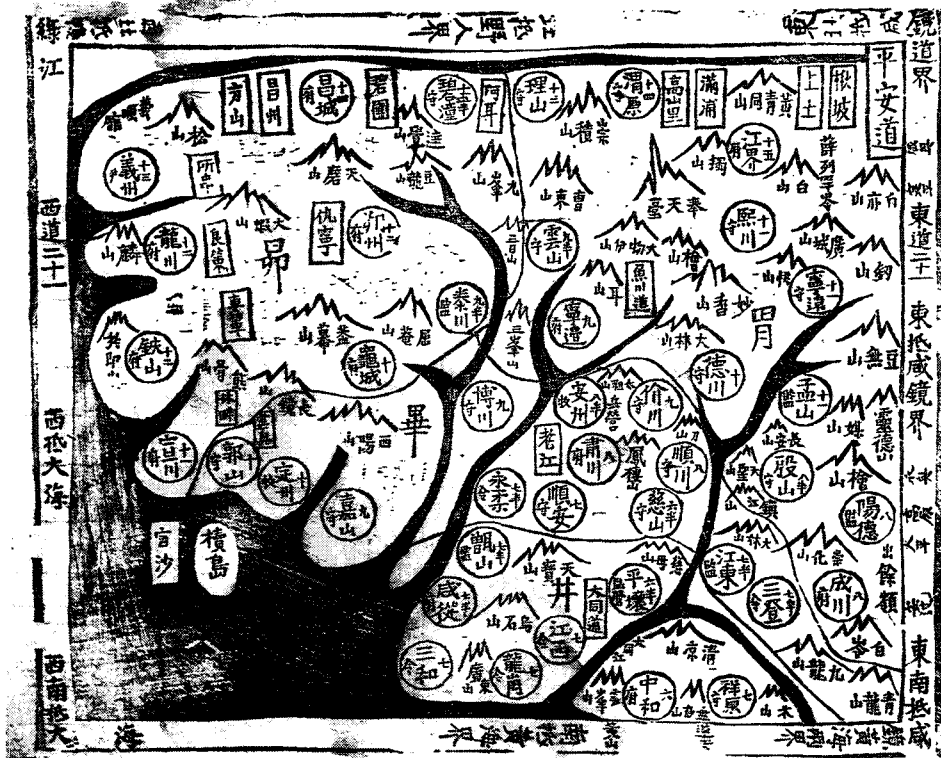


그림 12 平安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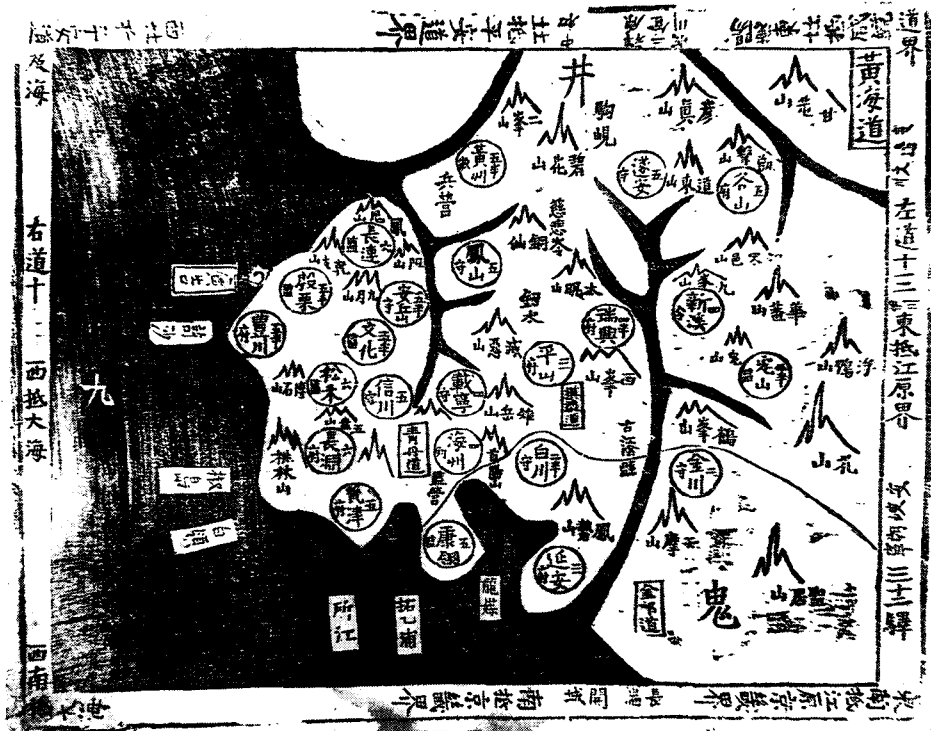


그림 13 黃海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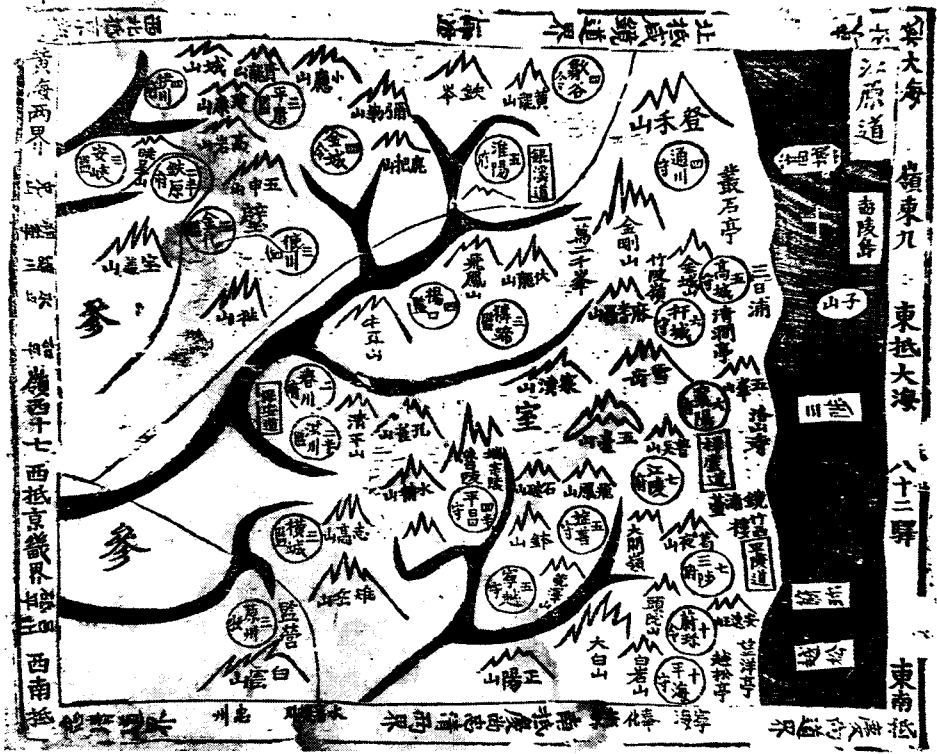


그림 14 江原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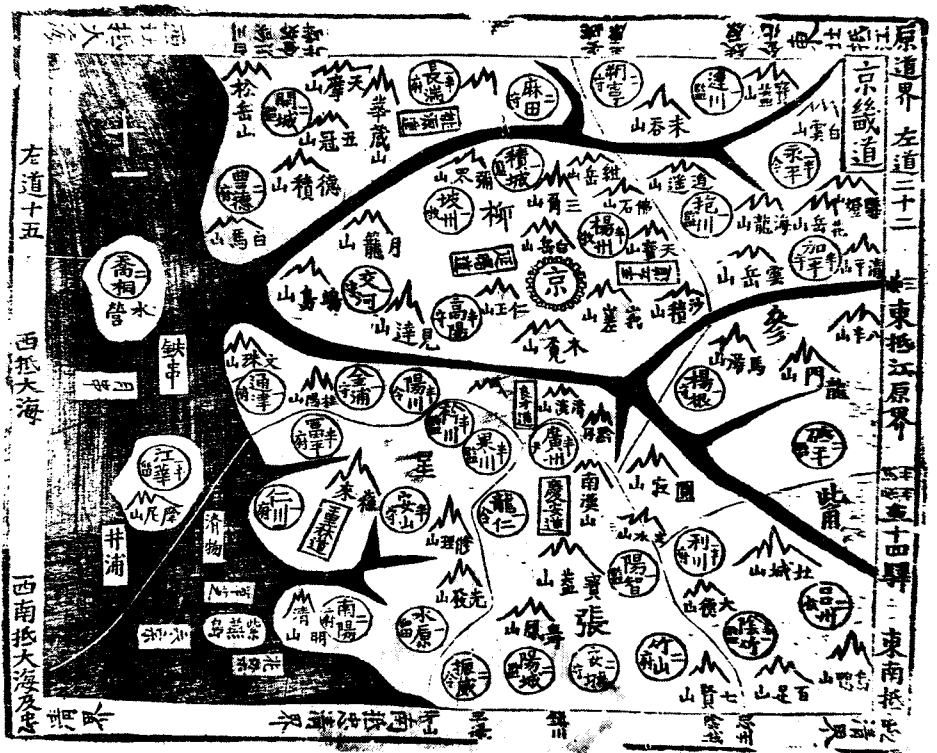


그림 15 京畿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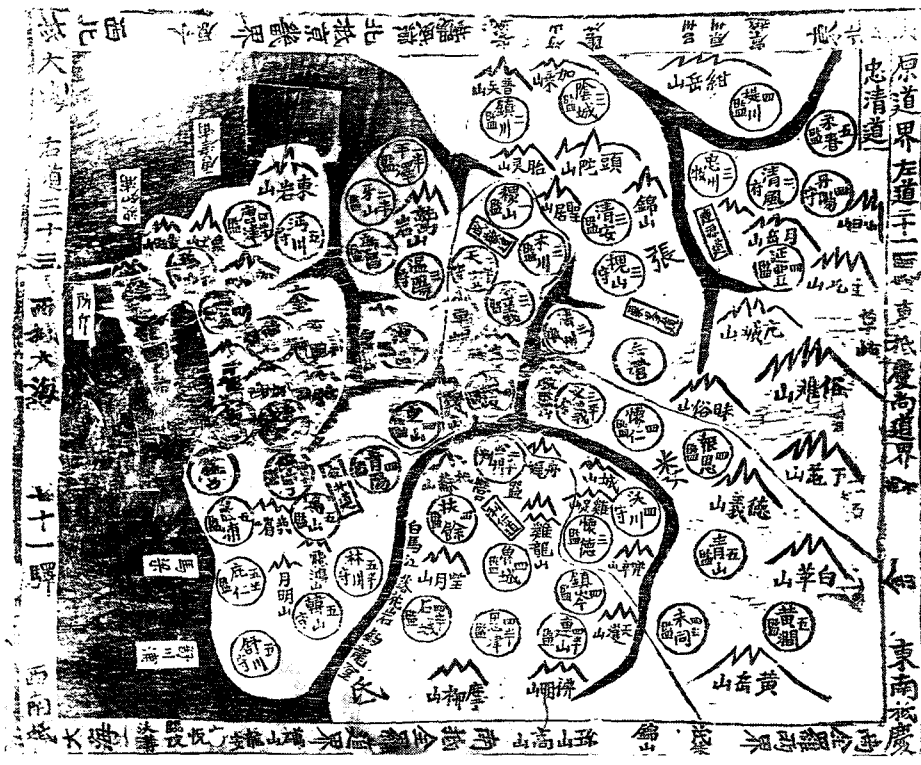


그림 16 忠清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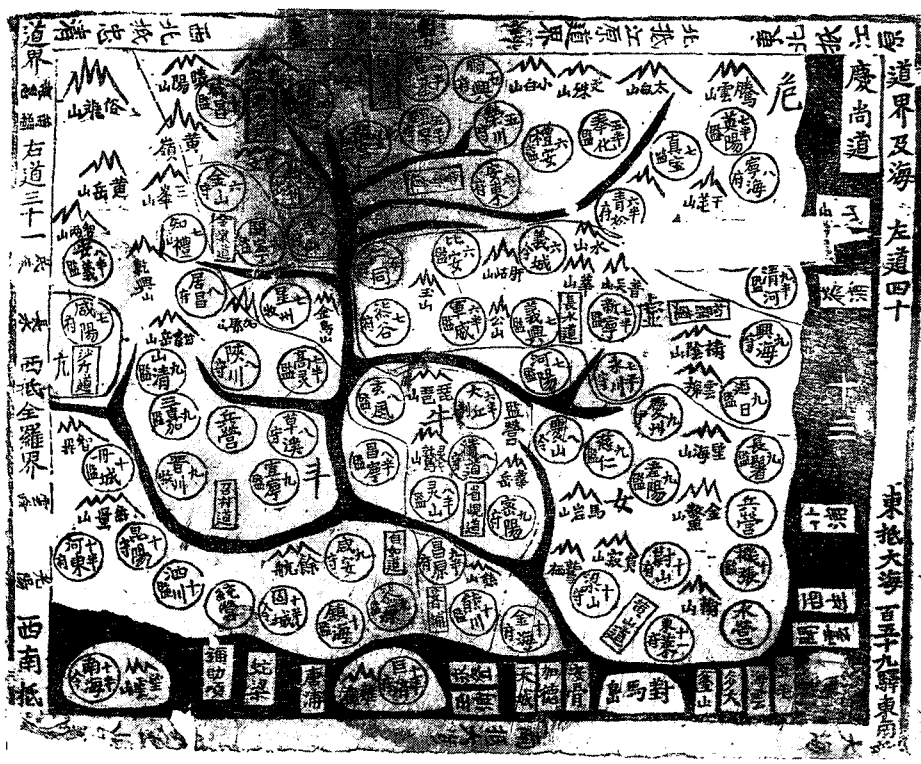


그림 17 慶尙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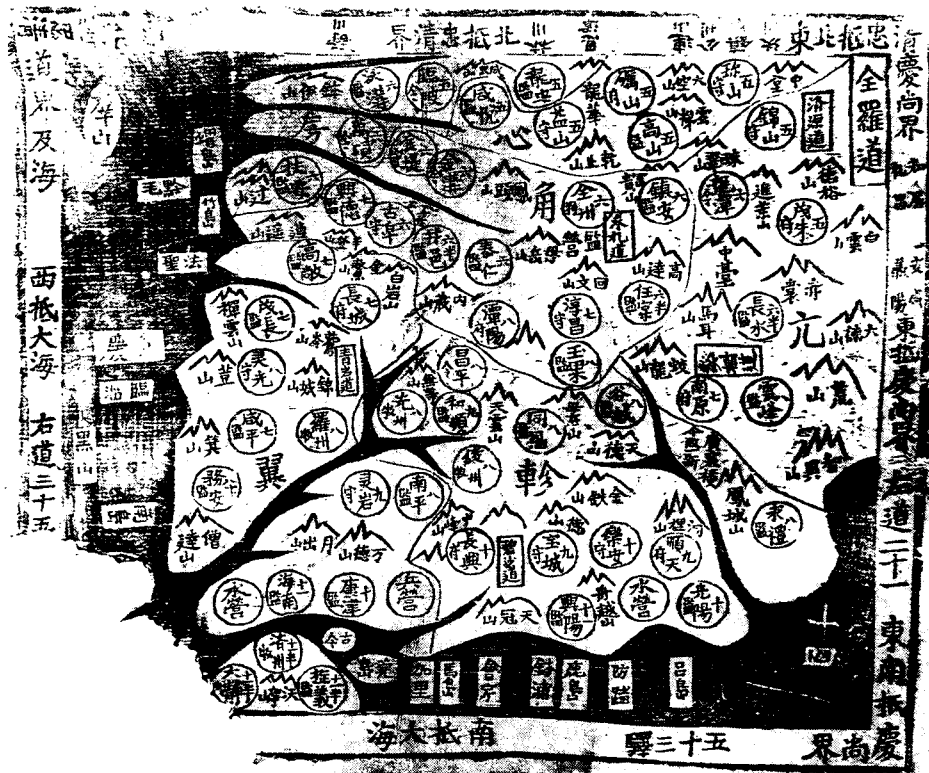


그림 18 全羅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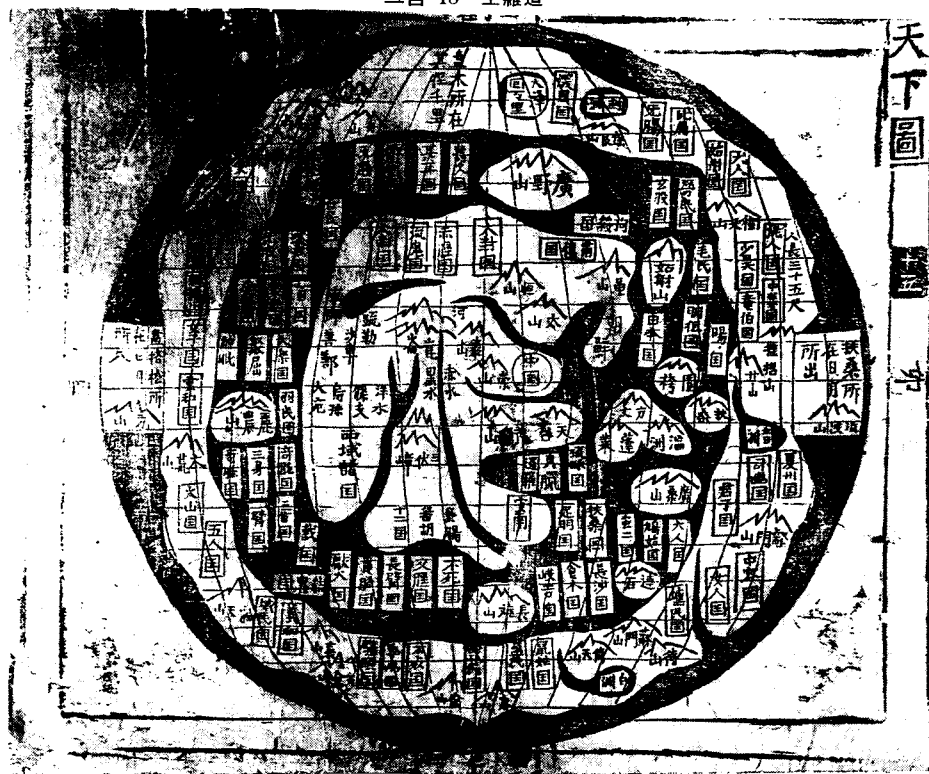


그림 19 天下圖